



메종의 예술 공예

빛의 장인, 마스터 인그레이버



VACHERON CONSTANTIN
GENÈVE

빛의 장인, 마스터 인그레이버

- 바쉐론 콘스탄틴의 마스터 인그레이빙 장인은 수작업 베벨 및 폴리싱 작업 전 시계의 모든 부품에 양각 또는 라인 인그레이빙 작업을 합니다.
- 인그레이빙 기법은 다른 공예 기법과 결합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활용되면서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해 왔습니다.

“하이 워치메이킹에서 인그레이빙은 시계 장식 과정에서 시계에 사용되는 소재와 진귀한 메탈에 예술적인 감각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마스터 인그레이빙 장인은 자신의 분야에 대한 애정을 담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이얼이나 케이스 미들에 모티브를 구현할 때 저는 빛과 볼륨, 그리고 대비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때로는 움직임이나 감정, 욕망을 암시해내기도 하죠. 하나의 미니어처 조각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의 장인, 마스터 인그레이버

바쉐론 콘스탄틴의 마스터 인그레이빙 장인은 인그레이빙이 가능한 시계의 모든 부품에 양각 또는 라인 인그레이빙 기법을 적용한 다음, 수작업으로 베벨 및 폴리싱 처리를 더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종종 다른 예술 공예 기법과 결합하여 탁월한 미학적 가치를 지닌 타임피스에 한층 화려한 매력을 더합니다. 다이얼, 케이스백, 커버, 핸즈, 클래스프, 오픈워크 무브먼트 부품은 14세기에 개발되어 지금까지 거의 변함없이 전해져 내려오는 조각용 끌, 조각도, 조각칼의 예리한 날을 거쳐 섬세하게 장식됩니다. 또한 19세기 중반 진정한 황금기를 누렸던 체이싱 및 파운싱 장식 기법과 같은 다양한 메탈 장식 기법을 아우르는 인그레이빙은 하이 워치메이킹의 최고급 타임피스와 무브먼트 장식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불완전함,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리는 텍스처의 향연으로
고객이 기대하는 오브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빛의 장인, 마스터 인그레이버

바쉐론 콘스탄틴의 마스터 인그레이빙 장인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이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인그레이빙은 시계에 작은 포인트를 더해 주는 요소입니다. 어쩌면 인그레이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하여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불완전함,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리는 텍스처의 향연으로 고객이 기대하는 오브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인그레이빙 기법의 진정한 미학이자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는 바로 기계로는 이를 그대로 재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그레이빙 예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섬세해진 수작업을 선보입니다.”

탁월한 기술력을 요하는, 마치 살아 있는 예술과도 같은 기법을 구현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인그레이빙 장인은 저마다의 사양에 맞춘 자체적인 도구를 제작하며 계속해서 혁신을 추구합니다. 인그레이빙 예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섬세해진 수작업을 선보입니다. 수년에 걸쳐 균형을 잡아가면서 소재에 대한 감각을 향상했으며,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강렬해진 라인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수준으로 진화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장인은 늘 자유로운 해석을 즐깁니다. 인그레이빙 장인은 계획 없이 다양하게 볼륨과 깊이를 탐구합니다. 이들은 경험의 힘을 바탕으로 일종의 직관을 개발함으로써 진정한 시간의 조각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빛의 장인, 마스터 인그레이버

인그레이빙 기법

다채로운 전통 인그레이빙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라인 인그레이빙

라인 인그레이빙은 금세공 장인으로부터 계승된, 조각칼을 활용한 인그레이빙을 의미합니다. 본래의 의미로부터 확장되어 메탈 위 공간에 조각칼(경사진 형태의 스틸 포인트를 갖추며, 끝이 스퀘어, 직사각형, 마름모꼴인 도구) 또는 드라이포인트(메탈에 스크래치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스틸 포인트)를 활용하여 인그레이빙을 더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며, 특히 과거의 인그레이빙, 스탬프, 지폐 재현을 위한 프린팅 기법에 활용됩니다. 이 기법의 탁월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독특한 작품은 바로 Les Cabinotiers 메카니크 소바주 - 미스터리어스 애니멀 타이거 Mekaniques Sauvages - Mysterious Animals Tiger 로, 야생 짐승의 머리를 조화롭게 숨기고 있는 특별한 정글 장식 디테일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쥬-에칭 인그레이빙

금세공 기법의 장식 인그레이빙에 활용되었던 쥬-에칭은 인그레이빙 장인이 조각칼을 기울여 더욱 넓은 폭으로 절개를 연출함으로써 인그레이빙 디테일로 모든 광채가 집중되는 디자인을 완성하는 변형된 기법입니다. 장식 또는 풍경을 재현하는 과정에는 미세한 세공 부스러기를 제거하며 깊이와 촘촘함을 조절하여 다양한 흠을 제작하는 방식이 포함됩니다. Les Cabinotiers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피닉스 Grand Complication Phoenix 타임피스에는 쥬-에칭을 비롯한 다양한 기법을 번갈아 적용하여 케이스밴드에 놀랄 만큼 실제와 가까운 양각 조각을 재현해냈습니다.

빛의 장인, 마스터 인그레이버

파운싱 장식

고대 조각상 걸작을 표현한 골드 조각 장식이 돋보이는 Metiers d'Art - 트리뷰트 투 그레이트 시빌라이제이션 Tribute to Great Civilisations 시리즈에 완벽하게 구현된 이 장식 기법은 소재를 제거하여 양각 효과를 연출합니다. 한 번 작업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이 작업에는 완벽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마스터 인그레이빙 장인은 우선 드라이포인트로 주요 볼륨을 그린 다음, 조각칼로 소재를 조각하여 이를 제거합니다. 최상의 정확성 구현을 위해 조각칼들을 여러 번 커팅합니다. 인그레이빙의 진행에 따라 마감 수준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다양한 표면 처리를 번갈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섬세한 디테일의 매력을 살리고 빛의 유희를 창조합니다.



체이싱

체이싱 장인은 소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이 둥근 도구, 끝이 무딘 소형 끌, 해머를 사용하여 두드리는 방식으로 소재를 누르고 변형시켜 다양한 높이의 형태와 패턴을 재현합니다. 이는 Traditionnelle 투르비용 기린 tourbillon Qilin 시계에 등장하는 신화적 동물의 털과 비늘을 강조하는 장식 기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빛의 장인, 마스터 인그레이버

특별한 시계

인그레이빙 실버 포켓 워치(1778년)

1778년에 제작된 이 타임피스는 무브먼트에 설립자의 이름인 "JM Vacheron a Geneve"가 새겨져 있으며 무브먼트의 밸런스 브릿지에도 정교한 인그레이빙 디테일이 있는 1755년의 시계를 제외하고 바쉐론 콘스탄틴 헤리티지 컬렉션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인그레이빙 포켓 워치입니다. 18세기 후반부는 마스터 인그레이빙 장인의 황금기이자 장식을 향한 바쉐론 콘스탄틴의 열정으로 다양한 영감을 선사한 동물 풍경, 수렵 풍경, 플로럴 테마를 풍성한 인그레이빙으로 구현해낸 다양한 타임피스 카탈로그가 등장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계의 커버와 케이스백 전체에는 가느다란 라인 인그레이빙이 적용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비둘기를 표현한 카르투슈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케이스밴드에는 당시 가장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여겨졌던, 곡선과 직선으로 구성된 보리 낱알 형태의 기묘세 패턴을 장식했습니다. 인그레이빙 기법은 장식적 측면과는 별개로 본디 메탈 소재의 빛 반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양한 인그레이빙 기법을 적용한 조형적 모티브와 장식 모티브가 번갈아 등장하는 이 타임피스는 독창적인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빛의 장인, 마스터 인그레이버

Metiers d'Art 코페르니쿠스 천구2460 RT(2017년)

Metiers d'Art 코페르니쿠스 천구2460 RT Copernicus celestial spheres 2460 RT 시리즈는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Nicolas Copernicus의 우주와 태양중심설이라는 놀라운 발견을 표현한 디자인으로 바쉐론 콘스탄틴 마스터 장인의 독창성을 고스란히 증명해 보입니다. 마스터 장인들은 이 테마를 바탕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는 다양한 특징을 갖춘 다이얼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중앙의 타원에는 수작업으로 스탬핑 처리 및 인그레이빙을 더한 핑크 골드 소재로 환하게 반짝이는 태양이 자리잡고 있으며, 바깥쪽 디스크에는 선별된 3가지 예술 공예 기법이 다채롭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자리잡은 작은 타원형 홈은 지구 궤도를 표현하는 공간입니다. 바로크 스타일의 다이얼의 화이트 골드 디스크 위에 서로 얽힌 형태로 수공 인그레이빙된 12개의 별자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인그레이빙 장인은 파운싱 장식 기법으로 풍성한 디테일을 재현함으로써 양각으로 공간감과 볼륨감을 섬세하게 연출해 보입니다. 확대경으로 가까이 들여다보면 궁수자리의 불룩한 근육과 바람에 흩날리는 염소자리의 갈기를 현실적으로 구현해낸 디테일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태양 주위에는 인그레이빙 효과가 돋보이는 미세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와 폴리싱 처리로 완성된 골드 컬러로 눈부신 빛을 자아내는 대륙의 세련된 묘사가 돋보이는 지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빛의 장인, 마스터 인그레이버

Les Cabinotiers 웨스트민스터 소네리 - 트리뷰트 투 요하네스 베르메르(2021년)

Les Cabinotiers 웨스트민스터 소네리 - 트리뷰트 투 요하네스 베르메르 Sonnerie Westminster - Tribute to Johannes Vermeer 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포켓 워치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방대한 지식이 집약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모델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바쉐론 콘스탄틴에서 자체 제작한 그랑 소네리와 뷔띠 소네리 웨스트민스터 차임을 갖춘 투르비용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는 시계이며, 디자인 관점에서는 바쉐론 콘스탄틴이 섬세하게 발전시켜 온 다양한 예술 공예 기법을 탁월하게 구현해낸 작품입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 Johannes Vermeer의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 Girl with a Pearl Earring를 미니어처 에나멜로 재현한 오피서 타입의 커버 외에도, 이 포켓 워치는 수공 인그레이빙으로 케이스 측면을 장식한 화려한 프리즈 디테일로 우아한 품격을 자아냅니다. 샹르베 장식으로 아칸서스 앞과 툴립을 구현한 프리즈 디테일은 도트별로 미세하게 체이싱 처리한 배경의 라인 인그레이빙과 만나 더욱 풍성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펄을 장식한 가장자리"와 조화를 이루는 프리즈 디테일은 포효하는 두 마리의 사자 머리를 장식한 보우와 만나 더욱 화려한 자태를 자아냅니다. 진정한 예술 작품과도 같은 보우는 고대 조각상에서 영감을 받은 환조 ronde-bosse 기법을 바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골드 블록을 조각하여 믿을 수 없을 만큼 생생한 형태로 재현된 두 개의 사자 머리에는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장인의 기법이 깃들여 있습니다. 이 포켓 워치의 돋보이는 인그레이빙 및 조각 기법의 다양한 요소들은 5개월간의 상당히 정교한 작업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빛의 장인, 마스터 인그레이버

Metiers d'Art 아에로스티어- 파리1783(2017년)

바쉐론 콘스탄틴의 Metiers d'Art 아에로스티어 Les Aerostiers 시리즈는 하늘을 정복하겠다는 오랜 역사 속에 매혹적인 흔적을 남겼던 최초의 비행에 생동감 넘치는 디자인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마스터 인그레이빙 장인은 다이얼의 작은 스케일 위에 1783년과 1785년 사이 프랑스에서 거행된 5번의 비행을 묘사한 과거의 드로잉을 미니어처 형태로 충실하게 구현하는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골드를 섬세하게 조각하여 수공 인그레이빙으로 구현된 화려한 열기구, 폴리카주르 에나멜로 구현한 반투명 배경 위를 떠다니고, 바쉐론 콘스탄틴이 자체 제작한 칼리버 2460 G4/1의 끊임없는 박동에 따라 다이얼 주위에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이얼에서는 특별하고 다양한 모티브가 더해진 화려한 미니어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Metiers d'Art 아에로스티어 - 파리 1783 Les Aerostiers - Paris 1783 타임피스에는 에티엔 드 몽골피에 Etienne de Montgolfier가 설계한 열기구와 최초로 “하늘을 나는 여행”을 즐긴 두 사람의 모습이 다이얼에 섬세한 조각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스카이 블루 컬러의 폴리카주르 에나멜을 배경으로 화려한 핑크 골드 및 화이트 골드 소재로 태양, 황도대, 백합 문장, 화환, 마스크롱 장식, 날개를 펼친 독수리를 인그레이빙 장식한 열기구의 디자인은 놀랍도록 매혹적인 풍경을 선사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70년 가까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여러 세대를 거쳐 숙련된 장인들을 통해 탁월한 워치메이킹의 유산과 세련된 양식의 정교한 시계 제조 기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래디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히스토리크 그리고 에제리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메종은 안목 높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캐비노티에"를 통해 특별한 주문 제작 시계뿐만 아니라, 레 컬렉셔너로 구성된 빈티지 타임피스를 경험할 수 있는 진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VACHERON CONSTANTIN | ONE OF
GENÈVE | NOT MANY.

